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치원장



회의 일시 및 장소 2016년 12월 13일(화요일) 저녁18:30, 유치원 1층 빛반 교실

참석 위원 학부모위원(5명) - 김담주, 박춘미, 유근영, 유혜진, 이지은
교원위원(3명) - 양순실, 조문숙, 봉성화
※ 불참(2명) - 홍이랑부위원장, 이미령교원위원

의사일정

1. 2017학년도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 나누기
2. 교육비 인상에 대한 자문
3. 기타 건의사항

○ 간사: 지금부터 제3기 3회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양순실원장: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사1. 2017학년도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 나누기>

○ 간사: 2017학년도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첨부자료) 정리 하였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건의, 불만사항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상반된 의견이 많습니 다. 발표회를 2년에 한번 했으면 하시는 분 , 방과 후 특활 만족과는 반대로 다 싫다 는 분도 계시고, 현장학습도 좋다는 의견 반대로 더 나가달라는 분, 대출도서 1권만 했으면 좋겠다는 분 등. 전체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언제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 양순실원장: 격려와 칭찬의 말씀도 많아 감사했습니다. 대부분 4점대의 만족한다 이상인데, 홈페이지나 운영위는 3점대가 나왔습니다.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는 접근의 편리를 위해 모바일과 호환이 되는 것으로 현재 작업 진행 중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 아마도 3월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도 위원장님께서 카페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생각보다 참여들이 많지 않 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김담주위원: 방문자수가 점점 줄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박춘미위원: 사실 의견이 있어도 유치원에 전화해 선생님이랑 통화하던지 하는 게 더 편하지 운영위 거쳐서 건의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것 같아요.

○ 이지은위원: 학부모님들 연락처를 공유하기는 어려울까요? 그러는 곳도 있더라구요.

○ 양순실원장: 요즘 개인정보 강화로 쉽지 않기도 하고, 학부모님들 중에는 연락처를 공개하거 나, 단톡방 운영 같은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죠.

○ 유근영위원: 카페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뭔가 더 참여할 거리를 만드 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간사 : 방과 후 특활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 학부모위원들: 물편에 대한 의견이 좀 있네요.
 - 양순실원장: 네. 요즘에 물편 블록을 가정에 구비한 경우도 있고, 연령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사실 5세를 기어 물편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구요.
 - 유혜진위원: 맞아요. 3, 4세 때 물편을 연속해서 하니 단계가 다른데도 조금은 지루해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5세 때 기어물편은 재미있어 해요.
 - 이지은위원: 물편이 끼우는 게 쉽지 않으니, 3세를 더 쉬운 물편활동이 있다면 그렇게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
 - 양순실원장: 그것도 알아볼만 하네요. 뉴기어물편도 나왔다는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간사: 학부모님들 의견 중에 약수 방과 후 특활이 잘되어 있다, 좋다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 김담주위원: 저는 골고루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 유혜진위원: 다 괜찮은데, 과학활동이 주로 물리나 화학위주의 실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다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 간사 : 유아들이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실험 위주로 계획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업체 측에 다양한 구성에 대해 건의해 보겠습니다.
 - 유혜진위원: 국악은 장구연주를 힘들어하긴 하는데, 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행사 때 아이들이 바른 자세로 장구장단을 치고, 함께 길쌈놀이하고 그런 것들이 감동이 되더라구요.
 - 양순실원장: 장구연주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팔을 계속 움직이고, 손에 계속 채를 쥐고 있고. 그런데 항상 장구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학기에는 전래놀이, 전래동요 등과 함께 진행하며 2학기에 들어서며 점점 장구연주를 늘립니다.
- 그럼, 2017학년도 방과 후 특활을 운영함에 있어 학부모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처럼 운영함에 동의하십니까?
- 참석위원전체: 네.
 - 간사 :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으나, 2학기에 안전사고로 마음 고생하셨던 위원님이 계세요. 아이와 부모님께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후 국통을 좀 식더라도 안전하게 미리 펴 놓고, 자료실에 문을 닫은 채 넣어놓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사전에 그랬다면 좋았겠으나, 이를 계기로 주변을 더 살피고 조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유혜진위원: 평소에 유치원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속상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담임교사, 원장님, 원감님과 자주 얘기 나눈 것은 저에게나 아이에게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교류가 자주 있고 소통이 있었다면, 좀 더 부드럽게 풀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 양순실원장: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 더욱 죄송합니다. 유아들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2. 2017학년도 교육비 인상>

○ 원장: 지난 11월 통신문에 공지한 바와 같이 물가,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교육비 인상은 불가피한데,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고시한 상한제 1.3%에 맞춰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교육비 인상에 대해 전원 이의 없이 동의)

<의사3. 기타 건의사항>

○ 박춘미위원: 체육복 등 작아져서 못 입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원생 간 교류를 통해 나누면 어떨까요? 아나바다나 바자회처럼요.

○ 이지은위원: 졸업하는 유아들의 경우, 체육복 기증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김담주위원: 학부모카페에도 [약수 아나바다장터]게시판도 있는데, 딱 1건 있더라구요.

○ 간사 : 그런데, 바자회나 장터같은 것을 열었을 때 공급량과 수요량이 맞지 않을 경우, 그리고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다양할지... 그리고 또하나의 행사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 김담주위원: 그럼 졸업생 대상으로 받아서 원에 보관하시고 필요한 분께 주시는 것도 어떨까요? 보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 양순실원장: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유근영위원: 카페의 게시판에 이런 정보를 공유해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활용해도 좋겠네요.

○ 유혜진위원: 발표회는 2명만 참석한다는 것을 글자크기를 크게 해서 보내면 어떨까요?

○ 유근영위원: 작년에 보니, 협조부탁을 어기고, 많이 온 가족들도 있더라구요.

○ 박춘미위원: 그럼, 2명만 올 수 있도록 티켓이나 팔찌 같은 것을 2개 내보내면 어떨까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입장할 수 있도록.

○ 위원들: 오~ 그거 괜찮은데요.

○ 양순실원장: 일정상 올해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내년 발표회에는 좀 고려해 볼만도 하네요. 그래도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가 강당에서 하는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잘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 유근영위원: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간사: 참여수업, 면담, 개원행사 때도 보실 수 있는데요.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 별도로 계획하기에는 좀 어려울 듯 한데요. 사실 평소에도 보시고 싶으시면 보실 수도 있긴 한데요.

○ 유근영위원: 사실 여유롭게 보기는 어려워요.

○ 박춘미위원: 금요일 도서관 지역사회 개방할 때 와서 봐도 되잖아요.

○ 유근영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양순실원장: 도서관 개방 때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교사들이 교실 정리 중이라, 그 시간대가 복잡할 수 있기도 해요.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어느 덧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이렇게 관심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2월 학년도 마무리 전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 간사: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간이 늦은 관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기 록 자 : 조문숙(인)